

정동영의 승부수 '현장 속으로'

한진중 사태·반값등록금 등 핵심 이슈 주도 지난 대선 패배 반성·성찰 통해 '뚝심 행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현장을 중심으로 '진보적 가치'를 제시하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정 최고위원이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맑과 눈물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일구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18대 국회에 진입한 정 최고위원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선언하며 현장에 뛰어 들었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매주 용산 참사 추모미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 유가족과의 아픔을 함께한 것은 물론 공권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치유를 국가가 책임지도

록 하는 일명 '트리우마 법' 등 3개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쌍용차의 정리해고,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 산재 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로 노동현안 문제를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가겠다"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조, 노동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담대한 진보'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정국 의제를 주도해 가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보수단체 여성 회원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야권대통합과 관련해서도 정 최고위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내 어느 누구보다 야권대통합의 목소리를 높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 최고위원은 시대적 과제인 야권대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정책 등을 고리로 야당 간의 가치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타 야당과

의 소통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도 활발한 접촉을 갖고 있다.

당초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어 왔던 정 최고위원이 현장 중심의 진보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배경은 과거 정치적 목욕에 가려 현장을 보지 못했던 데 대한 뼈아픈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를 등려에 일회일 비하기 보다는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변화시켜 정권재창출의 꿈을 이루겠다며 오히려 현장 참여를 강화하는 뚝심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보 진영에서도 정 최고위원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 최고위원이 진보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야권대통합의 활로를 확보한다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치마이크리치 서포터즈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민주노총 김영호 위원장,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8.20 희망시국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대북지원 '분배현장 모니터링' 수용

민화협, 밀가루 분배 동영상 통일부 제출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분배현장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지난 3~6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방문, 밀가루 분배현장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동영상 등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앞서 7월26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밀가루 100t 등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통일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정부에 제출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 측이 지정한 장소를 포함한 여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수혜대상과 인원 등 분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도 제출토록 민간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6일 관계자 6명이 방북해 현장 모니터링을 한 민화협 측은 "(까다로운 수준의 모니터링이었는데)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5·24 조치 등으로 중단됐던 대북 밀가루 지원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후 3주 남짓한 기간 민화협, 천주교 등 4개 단체가 밀가루 146t 등 8억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불허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앞서 7월26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밀가루 100t 등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통일부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정부에 제출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특히 우리 측이 지정한 장소를 포함한 여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수혜대상과 인원 등 분배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도 제출토록 민간단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6일 관계자 6명이 방북해 현장 모니터링을 한 민화협 측은 "(까다로운 수준의 모니터링이었는데)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5·24 조치 등으로 중단됐던 대북 밀가루 지원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후 3주 남짓한 기간 민화협, 천주교 등 4개 단체가 밀가루 146t 등 8억6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불허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연합뉴스

독거노인 인근 경로당서 모여 산다

광주시, '공동 거주제' 시범 운영 남·북·광산구 24일부터 순차 실시

'고독고(孤獨高)'에 시달리며 사건·사고에도 취약한 독거노인들이 한데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광주에서 시범운영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5명, 북구 4명, 광산구 4명 등의 독거노인이 인근 경로당에서 함께 살면서 숙박·취사가 가능하게 하도록 매달 30만원

씩 보조하기로 했다.

이 사업 대상자는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독거노인들로, 광주시는 연말 만족도 조사를 거쳐 이 사업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실시 대상지는 남구 북수경로당, 북구 월출경로당, 광산구 송학경로당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독거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오전과 오후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가서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보고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다른 지역도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 초 '독거노인 공동거주' 제도를 구상한 뒤 수요조사와 대상지 시설 개보수 등을 거쳤으며, 오는 24일 남구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광주, 일반 노후아파트도 시설 개선비

20년 이상 70㎡이하 전국 지자체중 최초

광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만이 아니라 전유면적이 적고 지은 지 20년이 지난 일반아파트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8일 "올해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후 단독주택과 노후영세아파트 공동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12억원,

쌍촌·하남·금호 등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개보수 사업에 15억원과 함께 20년 이상 지난 전유면적 70㎡ 이하 아파트의 시설개선세 5억원 등 서민 주거안정에 모두 3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선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일이다.

광주시는 건립한 지 20년 이상이 지나고 전유면적 70㎡ 미만인 77개 단지(동구 14 서구 24 남구

16 북구 17 광산 6)을 대상으로 매년 시급성을 감안해 지원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지 선정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 위임된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세는 올해 보일러 교체 200세대, 발코니 500세대, 욕실 내부공사 305세대, 옥상방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北 NLL 포격때 연평부대에 10발 발사 지시 이행 안돼

軍 '先조치 後보고' 유명무실

2함대사령관이 사격 지시... 대응 혼선

북한이 지난 10일 북한함계선(NLL) 인근에 포탄을 발사했을 당시 우리 군의 조치가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강조했던 '선(先)조치, 후(後)보고'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18일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격 당시 일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북한군이 쏜 포탄 3발 중 2발은 NLL 인근 북측 해역에, 1발은 NLL을 넘어 0.6km 거리의 남측 해역으로 떨어졌다.

평시 작전 담당인 제2함대사령부는 상황보고를 받고 나서 '3배 대응' 원칙에 따라 총 10발을 사격하도록 연평부대에 지시했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합참과 화상회의 후에야 NLL을 넘은 포탄 1발에 대해 서민 포격 이후 1시간이 넘어 3발의 대응 사격이 이뤄졌다.

합참은 이에 대해 오후 1시 도발 당시 NLL 이남에 떨어진 포탄이 1발이 아니라 K-9으로 3발만 대응한 것은 적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작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합참이 작전을 총괄했던 셈이어서 감관전 국방장관 취임 직후 표방해온 일선 부대의 '선조치, 후보고'는 유명무실했다고 할 수 있다"며 "또 합참 주장에 따르면 제2함대 사령관이 무리한 사격지시(10발)를 한 적이 돼 군의 대응에 혼선이 있었음은 분명한 만큼 명령체계 혼선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격 당시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는 당시 북한군이 오후 1시와 오후 7시46분께 발사한 총 5발의 포탄 궤적을 전혀 추적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자유투어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광주지점 OPEN 기념!
가격은 특가! 품질은 품격! 대!방!출!

자유투어 ★품의 휴양지★ 하와이 5일 ONLY 아시아나 항공 취항기념 9/22~12/1

자유여행 699,000 원~
실속여행 799,000 원~
품격여행 999,000 원~

Good! 찬스! ★무릉도원 바로그곳★ 장가계/천문산 4/5일 아시아나 항공 이용 10/26까지

실속여행 499,000 원~
품격여행 649,000 원~
포함사항 : 향릉동굴, 천문산, 발맛사지, 상강유람선(선내식), 2억보험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 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 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 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 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 원~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8/28,31 9/4,7 99,000 원
9/11 추석기간 199,000 원
9/14,18,21 129,000 원
9/25,28 149,000 원
10/2~12/21 179,000 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8,9,10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 원~
서유럽4국(프,스,이,영) 8일 1,990,000 원~
서유럽5국(웅프라우) 10일 2,090,000 원~
서유럽6국(웅프라우) 12일 2,290,000 원~
서,동유럽완전일주 15/16일 2,790,000 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 원~
NO-TIP 동유럽 6국 9일 1,890,000 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 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 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 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 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두암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조선대점 227-8255

진월점 382-5353

첨단점 233-2627

충장점 222-9796

하남점 954-9700